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WELCOME
WORSHIP
DISCIPLESHIP

[Matthew 11:28-30]

주일예배 및 모임안내

주일1부예배	본당	9:00 am
주일2부예배	본당 & 라이브	11:00 am
Youth	아가페홀	11:00 am
유초등부	아가페홀	11:00 am
영유치부	본당 지하	11:00 am
화요소망학교	본당 지하	11:00 am
수요일예배	본당	7:00 pm
AWANA (수)	아가페홀	7:00 pm
새벽예배 (화-토)	본당	6:00 am
청년부예배 (토)	아가페홀	12:30 pm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김성직 목사	은퇴장로	김대희 배상진 임병갑 장기림 백근조
방송/청년	오정훈 목사		이덕홍 이창진 윤순화 오귀록
소망학교	이신웅 전도사	찬양인도	황규식
중고등부	문강한 전도사	지휘자/서무	박은실
유초등부	청빙중	반주자	노윤실사모(1부,새벽) 김은화 이화니(2부)
영유치부	김성은 사모	번역/통역	김예람 이화니 송명신
시무장로	백형수 윤순기	방송	조준한 Daniel Sewell

열방을 섬기는 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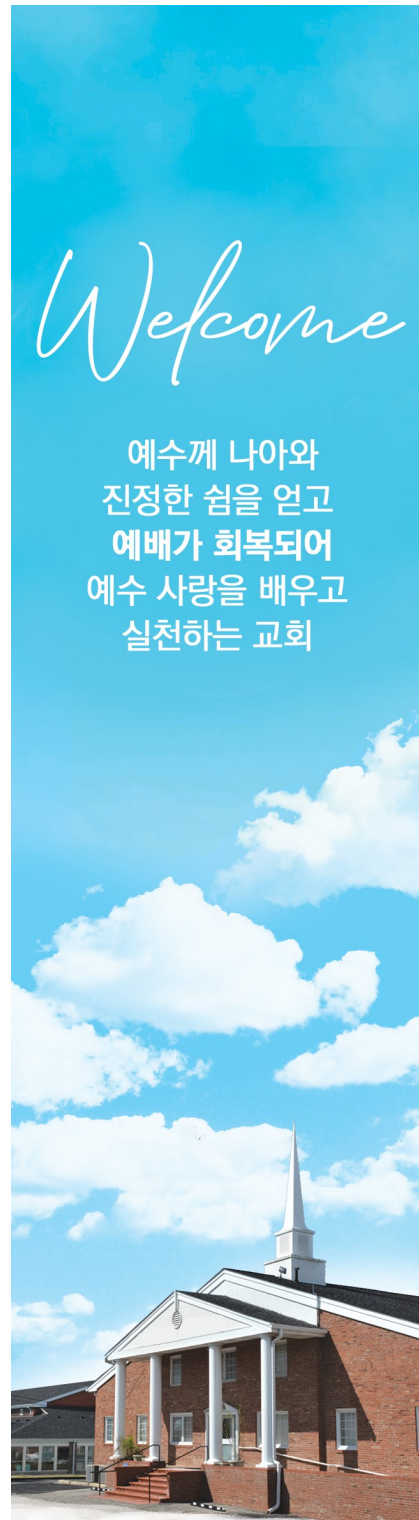
태 국	배중원	요 르 단	설총호/전경원
중 국	이주애	도미니카	이광호
케냐	이영규	아파치인디안	강원용
칠레	황신재	키르키즈스탄	바나바/다비다
모로코	김영목		



세인트루이스 한인소망교회

Korean Hope Presbyterian Church of St. Louis

2210 Mckelvey Rd., Maryland Heights, MO 63043
Church (314) 275-2661 Agape Hall (314)786-5018
Email HopeSTL@gmail.com www.HopeSTL.org



Welcome

예수께 나아와
진정한 심을 얻고
예배가 회복되어
예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교회

8.13.2023

소명자의 사명
처녀 딸 이스라엘 (1)

1부 9:00 AM 2부 11:00 AM

LIVE

주 일 예배

SUNDAY WORSHIP

경배와 찬양	찬양팀 (15분 전부터 시작됩니다)
* 기원	인도자 / 김성직 목사
신앙고백	사도신경
성서교독	교독문 70번 이사야 Isaiah 42
참회의 기도	요한일서 1 John 1:8-9
찬송	찬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다같이
기도	윤순기 장로
광고	인도자 / 김성직 목사
봉헌, 봉헌송	찬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다같이
봉헌기도	인도자 / 김성직 목사
성경봉독	예레미야 Jeremiah 31:4-22, OT p 1100
말씀	소명자의 사명: 처녀 딸 이스라엘 (1) / 김성직 목사
Sermon	Missions of the Called: O Virgin Daughter Israel (1)
*결단의 찬양	물이 바다 덮음 같이
* 축도	김성직 목사

* 일어서서 Please stand up

목회자컬럼 // 김성직 목사

우리는 모든 은사, 즉 선물을 다른 지체,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몸이 된 다른 성도들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교리문답의 둘째 부분을 정리해볼까요?

1) 우리가 가진 은사, 즉 선물을 누구의 유익과 복을 다른 지체를 위해서 써야 합니다.

2) 다른 지체를 위해 우리의 은사를 써야 하는 우리의 의무, 이 의무를 다할 때,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하라고 합니다.

할까말까 망설이지도 말고, 억지로 해서도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지체의 복을 위해서 써야 한다고 하 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말합니다.

‘복’, 이 말을 생각해봅시다. 우리 모두는 복을 참 좋아합니다. 복이라는 글자를 아 파트 계단에조차 붙여놓는 중국인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복을 나눠주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 다른 지체, 다른 형제들에게 ‘복’ 그 자체가 될 마음은 없습니까?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 다 알지만, 자신이 그 ‘복’이 되기는 주저합니다. 그 자체가 복인데 말입니다.

이 대목에서 주님의 말씀 한 구절 떠올려 봅시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행 20:35)"

다’입니다. 물론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붙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고집어내셔서, ‘삼위 하나님 안으로’ 불러들인 사람들입니다. 세례가 바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의식입니다. 예수님과 합쳐집니다(롬 6:3-4, 갈 3:27).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순간, 이미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를 ‘거룩한 사람’, 즉 성도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2) 이 성도가 예수님과 어떤 교제를 가집니까?

예수님과 합쳐져서 성도가 된 우리의 모습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1) 신자는 모두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손, 발, 귀 등 몸의 각 부분들입니다.

2) 주 그리스도와 교제합니다. 그분과 진짜로 ‘사귀입니다.’

3) 그분의 보화와 은사, 즉 선물에 참여합니다. 다 누립니다.

예수님의 모든 보물이 다 우리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3) 성도들 간에는 어떤 교제가 있어야 합니까?

이런 성도들은 자신들이 예수님 때문에



성경으로 풀어낸 사도신경 (26)

“계속해서 “성경으로 풀어낸 사도신경 (이운연 지음)”의 내용들을 공유합니다. 늘 내 안에 있는 신앙을 점검하고, 또 맡겨진 모든 곳을 바르게 세워나가 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18과>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사도행전 20:35

*들어가면서

▶ “성도들 간의 교제를 믿습니까?”
여전도회 친목회, 학생회 야유회, 청년회 볼링대회, 이런 친교, 혹은 교제를 위한 모임이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라는 말일까요?

▶ 초대교회, 로마시대에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자신들이 교인이라고 밝히지 못하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이 때 성도들 사이에는 어떤 교제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교제가 가능했는지,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얼굴도 모르는데? 예수 믿노라고 당당히 말도 못하는 마당인데?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님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앞에서 거듭 말했듯이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펴보려 하는 내용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고백해야 할 신앙의 중요한 항목일까요? 스무 가지가 안 되는 이 사도신경의 항목 안에 들어갈 정도로 중요한 고백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고백만큼이나 중요해서 여기 들어 있을까요?

1. 예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의 교제 성도들 사이에 서로 ‘교제’, 즉 친교 혹은 사귀어 있으면 우선 우리 각자가 예수님과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사랑의 사귀어 없으면, 예수님의 백성인 다른 사람과 사귀어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가르침을 먼저 살펴봅시다.

문 55.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답: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성도의 교제’에서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란 말 그대로 ‘거룩한 무리’입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이 ‘거룩하다’ 혹은 ‘성결’이라는 말을 쓸 때, 그 1차적인 의미는 ‘다르다, 분리되

성시교독

교독문 70번 이사야 Isaiah 42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며 **[다같이]**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소명자의 사명: 처녀 딸 이스라엘(1), 렘31:4-22

<본문 속으로>

1. 하나님께서 ‘처녀 이스라엘’을 먼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나요? (4절)

2. ‘처녀 이스라엘’은 다시 소고를 들고 누구와 함께 춤추며 나오게 되나요? (4절)

3. 하나님께서 땅 끝에서부터 모으시는 예배자들에는 누구 누구가 포함되어 있나요? (8절, 10절)

4. ‘처녀 이스라엘’은 결국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기뻐 외치며 무엇을 하게 되나요? (7절)

SATURDAY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1. “의”와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2. 담임목사님에게 날마다 새 힘과 권능을 주셔서, 귀한 영의 양식을 말씀으로 능력있게 전하고 주님 사랑으로 성도들을 품게 하소서.
3. 모든 리더쉽들에게 항상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 반석 위에 모두 한 마음으로 동역하게 하시고, 사역의 현장마다 풍성한 섬김의 열매가 있게 하소서.

SUNDAY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1. 세상 풍조에서 벗어나,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가득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

이창진 장로님: 무릎 수술 후 회복 중입니다.

안성실 권사님: 허리 수술 후 회복 중입니다.

배상진 장로님: 노환으로 힘든 중에 계십니다.

송명신 자매님: 계속 건강회복중입니다.

이소연 자매님 딸 엘라: 어릴적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앓고 있습니다. 고관절 재수술과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장길자 권사님: 협착증으로 허리 수술 후 회복 중입니다.

백영희 집사님 딸 엘리슨: 두 번의 턱 수술 후 회복 중입니다.

이신웅 전도사님: 뇌에 Hematoma 수술후 회복 중입니다

2. 거짓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으며, 오직 예수님의 선하심을 내 안에서 점점 회복해 나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3. 평생 여호와의 경외하는 예배자로 주께 납작 엎드러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MONDAY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게 하소서

오직 성경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주께서 옳다 하시는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소서.

2.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대로 행하는 열매가 점점 맺히게 하소서.

3.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선”한 것에는 지혜롭고, 반면 “악”한 것에는 미련하게 하소서.

TUESDAY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1. 부모인 내가 먼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며,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소서.

2. 하나님만이 중심 되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가정되게 하소서.

3. 성경적 가정의 모범을 이루어 서로 사랑하며 공경하며 순응하게 하소서.

WEDNESDAY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1. 주께서 맡겨주신 자리이기에, 주께서 부여하시는 은혜와 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2. 성경 말씀에 기초한 선택과 집중으로 학업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소서.

3. 세상과 아무런 마찰이 없이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빛의 용사가 되게 하소서.

THURSDAY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소서

1.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그리고 이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하소서.

2. ‘코로나19’을 지나가며, 각 나라와 민족들이 더욱 더 하나님 앞에 무릎꿇고 회개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3.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 흠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어디서든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FRIDAY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소서

1.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

2.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아 거룩한 계보를 이어서 교회와 민족과 맡겨진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3. 흔들리는 세상 문화 속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당당하게 믿음의 뜻을 정하게 하소서.

<생활 속으로>

1. 하나님께 새롭게 세움 받은 소명자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라는 말씀처럼, ‘관계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는 과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춤추는 “관계 회복이,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2. 2. 하나님께 새롭게 세움 받은 소명자는,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예배 회복’이 일어납니다. 진정 우리의 예배에는 연약하고, 병들고, 지치고, 상처받고, 죄인 취급받는 이들이 부담 없이 눈치 안 보고, 소외감 없이, 그저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맞는지, 점검해 보세요.

3. 하나님께 새롭게 세움 받은 소명자는,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라는 말씀처럼, ‘사명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정녕 맡겨주신 누구 앞에도 제대로 서서 주를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소 망 소 식

예배를 섬기는 이들

8/13		8/20	
대표 기도	윤순기 장로	대표 기도	윤순화 장로
교회 안내	임병갑 장로, 배은숙 권사	교회 안내	전세환 장로
번역/통역	이화니, 송명신 자매	통역	송명신 자매
애찬 담당	요르단 구역	애찬 담당	독수리 구역
교회 청소	칠레 구역 (8월)	교회 청소	칠레 구역 (8월)

향기로운 예물 8/6/2023

주일	\$1,085	건축	\$220	주일학교/유스	\$4
십일조	\$4,267	첫열매	\$0	방송문서 헌금	\$100
감사	\$610				
선교	\$20				
구역선교	\$500			헌금총액	\$6,806.00

헌금 외 수입금

크레딧카드 Award \$ 25

합계 \$ 25
입금총액 \$6,831.00

교회헌금 KHPC 2210 McKelvey Rd., Maryland Heights, MO 63043
온라인 HopeSTL.org/online-donation

1. AWANA

‘어린이들을 위한 AWANA (Approved Workmen Are Not Ashamed)’ 프로그램을 시작하려 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딤후 2:17).”라는 말씀을 기반으로, ‘어린이들의 성경 말씀 암송 훈련’인 AWANA를 우리 수요예배와 맞추어 함께 시작합니다.

- (1) 대상: Preschool ~ 5th Grader
- (2) 기간: 8/23/2023 (수) ~ 5/22/2024 (수) @7PM
- (3) 장소: 한인소망교회 아가페홀
- (4) 등록비: \$20 (둘째 아이는 \$10)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2. 수요예배

8월23일(수)부터 수요예배를 7PM에 시작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집중하는 예배자!’ 라는 모토를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좋은 무화과’로 예배드려요.

3. 주일 설교

다음 주일(8/20)에는 강원용목사님께서 방문하시고 설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교우동정

새로 등록된 교인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구역 중국 구역 (임병갑 장로 배은숙 권사)과 이주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가정 이신웅 (남진우 권사) 전도사님 가정과 건강회복을 위해서

교회행사

8월 23일 (수)



수요예배 시작
@7 PM

8월 27일 (주)
성찬식